

藥泉 南九萬 上疏文의 構成 原理와 展開 樣相

—『章疏彙攷』와『疏筭可則』所在 辭職上疏文을 中心으로—

尹載煥*

Ⅱ 차례 Ⅱ

- I. 序論
- II. 藥泉의 上疏文과『章疏彙攷』·『疏筭可則』
- III. 上疏文의 構成과 藥泉 上疏文
- IV. 藥泉 上疏文 展開 樣相의 實在
- V. 結論

【국문초록】

藥泉 南九萬은 仁祖 7년(1629)에서 肅宗 37년(1711)까지 83년간을 살다 간 인물이다. 당대 少論系列의 중심에 서서 政局을 주도해갔던 인물이지만, 34권 17책의 적지 않은 문집 속에 276수의 시와 726편의 문을 남기고 있다. 특히 문집 전부가 그 자신의 글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 글에 대한 평가가 생전부터 상당했었다. 그런데 그의 문집 중 詩가 수록된 권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上疏文이다. 따라서 약천은 시보다 문에 뛰어났고, 문 가운데 상소문에 특장이 있었던 관료 문인이라고 생각된다.

조선 후기의 상소문 선집인『章疏彙攷』와『疏筭可則』에 모두 약천의 상소문이 수록되어 있는데,『疏筭可則』에 수록된 13편의 상소문 중 8편이 약천의 것이고,『章疏彙攷』에 수록된 상소문 중 6편이 약천의 상소문이다. 중복된 상소문을 제하면 모두 13편인데, 이 중에서 10편의 상소문이 辭職上疏文이다. 이런 모습은 그의 상소문 199편 중 162편이 사직상소문에 해당하는 것과 같고, 조선조 일반적인 상소문의 성격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약천의 사직상소문이 지니는 특성은 그의 문장관과 일치한다. 약천은 그 사람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사람이 지은 글의 아름다움이 결정되기 때문에 좋은 글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적인 내면의 수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좋은 글, 아름다운 문장은 화려한 수식이나 공교로운 묘사가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소박하고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약천의 문장관인데, 이런 모습은 그의 사직상소문에서도 볼 수 있다. 투식과 관습적 표현을 배격하고 직설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직접적인 서술이 주를 이룬다.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문장 안에 자신이 뜻하는 것을 그대로 담아 임금의 선택을 요구한 그의 상소문은 상소문이라는 성격의 글이 지닌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최상의 글쓰기 방법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약천 남구만, 상소문, 사직상소문, 『章疏彙攷』, 『疏筭可則』

I. 序論

藥泉 南九萬은 仁祖 7년(1629)에서 肅宗 37년(1711)까지 83년간을 살다 간 인물이다. 83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살면서 校理부터 領議政에 이르기까지 중앙 官階의 대부분을 거친 인물이고, 그 사이사이에 府使와 觀察使를 지내 조선조 官界에 몸담은 관료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관직을 역임한 인물이다. 숙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당대 정치의 중심에서 정치·경제·형정·군정·인재 등용·儀禮 등 국정 전반에 걸쳐 經綸을 펼친 인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국방에 대해 남다른 의식을 가져 역사 고증과 국방에 대한 다양한 글을 남겼다.

당대 少論系列의 중심에 서서 政局을 주도해갔던 약천의 행적 때문에 현재까지 약천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는 대부분 역사와 정치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비록 약천이라는 인물에 대한 해명이 그의 정치적인 행적과 분리해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약천을 정치적인 면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적지 않은 무리가 있다. 그것은 그가 34권 17책의 적지 않은 문집을 남겼고, 그 속에 276수의 시와 726편의 문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애초 시는 모두 900여 수, 문은 모두 1,400여 편이었지만, 문집을 편찬할 때 아들인 南鶴鳴(효종 5년(1654)~경종 2년(1722))과 손자 南克寬(1689년(숙종 15)~1714년(숙종 40))이 刪定하였다고 보인다.¹⁾

문집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를 문학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거나 그의 문학적 성취가 뛰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약천의 경우 남아 있는 문집 전부가 그 자신의 글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 글에 대한 평가가 생전부터 상당했었다. 약천은 당대 崔鳴吉, 金昌協, 金錫胄 등과 함께 四大疏筭家²⁾로 불릴 만큼 문장에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의 문장에 대한 평가는 『朝鮮王朝實錄』의 卒記에도 나온다. “남구만은 젊어서부터 文才가 있었고, 筆法도 공교하고 아름다웠다.³⁾”, “文辭가 법도 있고 아름다웠으며, 筆畫도 예스럽고도 힘찼다.⁴⁾”는 평가는 그의 글이 당대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가 能文의 관료 문인으로 이름을 떨쳤음을 짐작하게 한다. 약천의 문집 34권 17책을 살펴보면 詩가 수록된 권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약천의 경우 시보다 문에 뛰어났었던 관료 문인이라고 보아야 할 듯하다.

약천의 문학에 관한 연구는 김영주에 의해 시작되었고, 성당제에 의해

1) 南九萬, 「總目」, 『藥泉集』, “草藁詩凡九百餘首, 選二百七十六首, 文凡一千四百餘首, 選七百二十餘首, 爲一千三百九十一板.”

2) 藥泉이 당대 崔鳴吉, 金昌協, 金錫胄 등과 함께 四大疏筭家로 불렸다는 것은 金成愛의 한국문집총간해제 『藥泉集』(한국고전번역원)과 成百曉의 『국역 약천집』 해제에 나온다. 해제의 내용으로 보아 金成愛의 글을 成百曉가 인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 출처를 찾아내지 못했다.

3) 『肅宗實錄』 권 50, 숙종 37년 3월 17일 병오 1번째 기사, “九萬少有文才, 筆法亦工媚.”

4) 『肅宗實錄補闕正誤』 권 50, 숙종 37년 3월 17일 병오 1번째 기사 “文辭典麗, 筆畫古健.”

대략적인 모습이 정리되었으며, 최근에 와서 上疏文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김지웅의 연구 결과는 약천 문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上疏文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약천의 산문이 지니는 본질적인 문학성을 찾고자한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⁵⁾

이 글은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된 것이다. 이 글은 전체 34권 17책이라는 약천의 문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199편의 上疏文이고, 그의 上疏文에 대한 후대의 다양한 평가로 볼 때 약천 문장의 핵심이 바로 上疏文에 놓여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약천 上疏文의 구성 원리와 전개 양상을 살펴 약천의 上疏文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서술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5) 현재까지 필자가 확인한 약천의 문학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주, 「藥泉 南九萬의 文學論 研究」, 『退溪學과 韓國文化』 33,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3.; 성당제, 「藥泉 南九萬 文學의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4.; 성당제, 「약천 남구만의 고토 회복의지 -변방 음영시를 중심으로-」, 『漢文學報』 10, 우리한문학회, 2004.; 양언석, 「남구만의 문학세계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1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4.; 박영민, 「藥泉 南九萬 한시의 연구」, 『한국인물사연구』 3, 한국인물사연구소, 2005.; 성당제, 「藥泉 上疏文의 文藝美와 현실대응」, 『人文科學』 36,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성당제, 「藥泉 記文의 山水美 形象과 敘述의 특징 : 「咸興十景圖記」와 「北關十景圖記」를 중심으로」, 『語文研究』 3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성당제, 「약천 남구만 시의 품격」, 『韓國漢文學研究』 35, 한국한문학회, 2005.; 최재남, 「유배체험의 내면화와 시적 반응」, 『韓國漢詩研究』 13, 한국한시학회, 2005.; 김동준, 「소론계 학자들의 자국어문 연구활동과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35, 민족문학사학회, 2007.; 김성언, 「남구만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7.; 성당제, 「약천 남구만 문학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김영주, 「藥泉 南九萬의 文學論 研究」, 『퇴계학과 유교문화』 33,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8.; 송혁기, 「疏筭類 산문의立意와 修辭 양상 일고-訃積 논척과 관련한 소차들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6, 민족문학사학회, 2008.; 송혁기, 「老少 分岐期の 學의 地形과 南九萬 계열 소론계의 문학비평」, 『고전과 해석』 10,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11.; 김지웅, 「藥泉 南九萬 疏筭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15.

약천 上疏文의 특징적인 면모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약천의 상소문 중 조선 후기에 편찬된 상소문 선집인 『章疏彙攷』와 『疏筭可則』에 수록되어 있는 상소문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을 『章疏彙攷』와 『疏筭可則』 소재 상소문으로 한정하는 것은 두 책이 조선의 끝자락에서 나온 상소문 선집으로 그 이전 시기까지 사람들에게 膾炙되었던 대표적인 상소문을 뽑아 편찬한 책이기 때문이다. 또 이 글에서 그의 상소문 199편 모두를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 없고,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의 상소문 중 대표작을 뽑아낼 경우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Ⅱ. 藥泉의 上疏文과 『章疏彙攷』·『疏筭可則』

藥泉의 문집인 『藥泉集』에 수록되어 있는 약천의 上疏文은 모두 199편인데, 문집의 권 3부터 권 12까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연도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약천의 나이 30세가 되던 1658년부터 1710년 82세 때까지 쓴 것들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약천의 상소문은 그가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간 28세(1656년, 효종 7)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시작하여 그가 83세가 되던 1711년 3월 17일 운명하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상소문이 문집의 권 3에 수록되어 있는 『請寢打圍疏』인데 제목 옆에 細註로 ‘孝宗戊戌六月三日正言時’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약천이 29세에 正言으로 임명된 뒤 그 이듬해 6월에 썼던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상소문이 문집의 권 12에 있는 『辭入參進宴疏』인데 제목 옆에 細註로 ‘四月二十三日’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약천이 운명하기 얼마 전에 지어 올렸던 것 같다. 이와 같은 약천 상소문의 창작 시기와 상소문의 수는

그가 생애의 대부분을 상소문과 같이 했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그의 저술 활동에서 상소문이 차지하는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 약천의 문집에는 그의 나이 61세가 되던 1689년 2월 이후(『蒙放後在道辭西樞疏』 己巳二月二日自慶興到樓院)부터 66세가 되던 1694년 4월 이전(『辭特拜領議政疏』 甲戌四月五日在結城)까지 약 6년 정도의 상소문이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는 약천이 己巳換局으로 유배되었다가 放還되었으나 다시 벼슬에 나가지 못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쓴 상소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소문에 대한 약천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시기에 해당하는 상소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 시기에 약천이 상소문을 짓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집의 總目 끝에 있는 刊記에서 文이 모두 1,400여 편이었으나 문집에는 그 중 720여 편만 뽑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점에서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상소문이 바로 약천과 그의 아들 晦隱 南鶴鳴, 손자 夢嚙 南克寬 3대의 文章觀과 軌를 같이 하는 것이고, 그들의 文章觀을 實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남극관이 그의 문집인 『夢嚙集』 乾의 雜著 十首 중에 있는 『端居日記』의 壬辰年(1712년, 숙종 38) 7월 5일 기록에서 “家集의 疏筭 5冊을 교정하였다.”⁶⁾고 한 것으로 보아 약천의 문집 校正과 刪定에 남학명과 함께 남극관이 참여하였고, 이들이 현재와 같이 약천의 문집을 刪定한 것은 이들의 문장관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약천의 문집에는 그가 스스로 밝힌 문장관에 대한 구체적인 글이 보이지 않지만, 序文이나 記文의 일부에서 문장 인식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엿보인다. 이 글들을 통해 약천의 문장관을 분명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

6) 南克寬, 『端居日記』, 『夢嚙集』 乾, 『雜著 十首』, “五日, 校家集疏筭第五冊.”

지만, 문집에서 드러나는 일면과 『조선왕조실록』의 글을 통해 약천이 지니고 있었던 문장 인식을 추론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知經筵으로 晝講에 참여한 약천이 숙종에게 올린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이 지난번 試官에 끼어 응시자들의 글을 보니 文體가 전에 비해 크게 변하였습니다. 보통 쓰는 文字들을 반드시 新奇하게 쓰려고 애써서, ‘天淵’이라고 쓸 말이면 바꾸어 ‘星淵’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별이 하늘에 있다고 해서 인 것이고, ‘末世’는 바꾸어 ‘亥世’라고 하였으니, ‘亥’가 12地支의 끝이기 때문 이어서였습니다. ‘繼此以後’는 바꾸어 ‘胤茲以裔’라고 하고, ‘恭惟’는 바꾸어 ‘莊惟’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글자와 궁벽한 말로 문장을 엮어서, 반드시 남들이 알아볼 수 없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그 중에는 語錄의 말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으니, 常規에서 벗어나 기괴함을 따르려는 습성은 진실로 매우 놀랄 일입니다. 지난날에는 姜弼周가 어록의 말을 對策文에 써서 과거에 합격했고, 요즘에는 趙宗著도 科製에 기이하고 험박한 말들을 즐겨 써서 여러 차례 높은 등수에 들었습니다. 쟁그리는 것을 본받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文體의 變易은 진실로 世道의 盛衰와 관계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體裁는 반드시 엄격하게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이 뜻을 中外에 알리셔서 일체를 금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⁷⁾

이 내용은 약천이 試官으로 과거에 참여한 뒤 자신이 느낀 당대 科文의

7) 『肅宗實錄』 卷 13, 숙종 8년 11월 25일 무진 2번째 기사, “臣頃忝試官, 見舉子之文, 則文體比前大變. 凡例用文字, 必務爲新奇, 若云天淵則變曰星淵, 以星之在天也; 末世則變曰亥世, 以亥居十二支之末也; 繼此以後, 則變曰胤茲以裔; 恭惟則變曰莊惟. 且以險字僻語, 綴成章句, 必欲使人不可解見. 又於其間, 多以語錄攙入, 反常趨怪之習, 誠甚可駭. 向者姜弼周用語錄於對策而登第, 近日趙宗著亦於科製, 好用奇僻之語, 屢居高等. 效顰者漸多, 以致如此. 文體變易, 實關世道之盛衰. 如此體裁, 不可不痛斥. 請以此意, 知委中外, 使之一切禁斷.”

병폐를 숙종에게 진언한 것이다. 이 기록을 보면 약천이 생각했던 문장은 語錄體와 같은 時俗의 글이나 新奇하고 險僻한 글이 아니라 常規를 따르는 글이다. 또 문장이 엄격한 體裁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文體의 變易가 世道의 盛衰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약천이 聖人の 文章을 典範으로 하는 規範的이고 道德的인 文章의 창작을 지향했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의식은 그의 문집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듣기에 선비 된 자는 집안에 들어가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오면 어른에게 공경하는 것 외에 또 글을 배우는 데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 이것은 內外가 서로 길러주고 本末이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혹 시라도 물 뿌리고 청소하고 응대하는 예절에만 전념하고, 글을 배우는 데 힘 쓰지 않는다면 식견이 지극하지 못하여 善을 밝히는 경지에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억하여 외우고 詩歌와 문장을 익히는 데만 노력하고, 수행하는 데 독실하지 않으면 근본이 성립되지 못해서 몸을 성실하게 하는 경지에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학문에 먼저 하고 뒤에 할 것과 시작과 종말이 비록 순서가 있다고 하나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실로 어느 한쪽도 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⁸⁾

이 글을 보면 약천이 道學과 文章이 비록 先後와 本末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레의 두 바퀴, 새의 두 날개와 같아 어느 하나도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에 나오는 약천의 의식은 조선조 문인 대부분이 지니고 있었던 ‘載道論的 文章觀’과 동일하다고

8) 南九萬, 『送姜進士亨叔 聖復 還洪陽序 己巳』, 『藥泉集』 卷 27, “余聞爲士者, 入孝出弟之外, 又不可不事於學文, 此內外之交養, 而本末之相須也. 其或專於洒掃應對之節, 不勉於學文, 則見識未到, 無以進乎明善之域. 其或役於記誦辭章之習, 不篤於修行, 則本原不立, 無以造乎誠身之地. 此其先後始終, 雖曰有序, 如車兩輪, 如鳥兩翼, 實不可廢一者也.”

할 수 있는데, 그럼 점에서 볼 때 그가 실제적인 문장의 창작에서 문장 그 자체의 가치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내가 들으니 옛날에 글을 지었던 이유는 말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입에서 나오면 말이 되고 책에 쓰이면 글이 되니, 이 두 가지는 함께 나온 것인데 이름이 다른 것이니, 옛날에 글의 쓰임이 이러한 것이다. 후세로 내려와서는 마침내 詞章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급급하게 模擬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는데, 文人들의 문장이 이러한 뿐만 아니라 儒學에 종사하는 자도 이를 면치 못하니, 이것 또한 옛날과 거리 멀다. …… 지금 문집 가운데의 글을 보면 대부분 講學의 工程을 논하였으니, 이리저리 논변한 것이 백 번이나 꺾여 세밀한 것까지 자세히 분석해서 명백하고 간절하여 진정이 크게 드러났다. 이를 통해 학문에 힘쓰기를 부지런하게 하고 독실하게 한 것을 자세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세상의 문필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그 누가 이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는가. 아, 이것은 참으로 儒者의 글이요, 이것은 참으로 옛사람이 글로 말을 한 것과 같은 것이다.⁹⁾

내가 들으니 ‘사람이 문장을 소중하게 할 수는 있어도 문장이 사람을 소중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문장으로써 후세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탁월하고 훌륭한 절개가 있어서이니, 그렇지 않으면 문장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9) 南九萬, 『滄溪集序 戊子』, 『藥泉集』 卷 27, “蓋聞古之制文, 所以記言也. 發諸口則爲言, 書諸冊則爲文, 之二者同出而異名, 文之爲用於古者然也. 降而後也, 乃有所謂 詞章之文, 竊竊焉摹擬假飾, 自以爲工, 不特文人爲然, 雖從事儒學者, 亦有不免於此, 其離古亦遠矣. …… 今觀集中之文, 率多論講學工程, 而往復百折, 毫分縷析, 明白懇惻, 眞情爛漫. 非但備見其於學用力之勤篤, 雖以文之美言之, 世之操觚者, 孰有加於此哉. 嗚呼. 此眞儒者之文, 此眞古人之以文爲言者也.”

다. 또 들으니 ‘문장이 적은데도 전해지고 많은데도 전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니, 전해지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충분히 그 문장을 소중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이고, 전해지지 않는 것도 반드시 문장이 그 사람을 소중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또 내가 이전에 들으니, ‘仁하고 義로운 사람은 그 말이 간곡하고 화기에애하다.’고 하였으니, 만일 仁義가 가슴속에 쌓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겉으로 드러내어 지은 문장이 비록 음률과 수식의 공교함을 지극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간곡하고 화기에애함을 찾아보면 끝내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공의 시문을 보면 참으로 ‘간곡하고 화기에애하다’고 하는 것이니, 저 세상에서 문장으로 자부한다고 이야기하나 인의에 근본 할 줄 모르는 자들이 어찌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사람이 문장을 소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문장의 아름다움도 실제로는 또 그 사람에게서 연유함을 볼 수 있다.¹⁰⁾

아, 지금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 단지 비분강개한 뜻으로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기술했을 뿐이니 언어의 묘함과 문장의 아름다움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하늘의 떴떴한 이치와 백성들 윤리의 중함을 증대시켜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感發해서 흥기하게 하는 것이 어찌면 이리도 많은가.¹¹⁾

이 글들을 보면 약천이 생각한 문장은 그 스스로가 익힌 학문이 그대로

10) 南九萬, 『醒翁集序 癸未』, 『藥泉集』 卷 27, “余聞人能重文, 文不能重人. 以此古人之文爲後世所重者, 必其人有卓犖奇偉之節, 不然文雖美, 不之重也. 又聞文有少而傳, 多而不傳, 其傳者必其人之足以重其文, 而不傳者亦必以其文之不能重其人故也. …… 又嘗聞之, 仁義之人, 其言藹如, 苟非仁義之積中, 其發而爲文章者, 雖極聲律藻繪之工, 求其所謂藹如, 終不可得. 今見公詩文, 眞所謂藹如者, 彼世之所稱以文章自命, 而不知本於仁義者, 顧何得以與於此哉. 繇此言之, 人之能重其文固也, 文之美, 實亦有由於人者又可見矣.”

11) 南九萬, 『白沙北遷錄序 丙寅』, 『藥泉集』 卷 27, “噫. 今觀其所記, 直以憤懣悲哀之意, 隨遇而直書之耳, 非有暇於言語之妙文章之美. 而所以增夫天常民彝之重, 使人感發而興起者, 一何多也.”

드러나는 그 사람됨과 같은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이 지은 글의 아름다움이 결정되기 때문에 좋은 글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적인 내면의 수양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글, 아름다운 문장은 화려한 수식이나 공교로운 묘사가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소박하고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박하고 단순한 글에 대한 추구는 아들인 南鶴鳴에게서도 볼 수 있다. 그는 “문집을 편찬할 때 詩文의 선정은 簡約하게 해야 하고, 편지는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글로 그 인물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하니 畫像을 그릴 때 모습을 아름답게 그리는 것을 따르지 않고 다만 가장 비슷하게 그리는 것으로 뜻을 삼는 것과 같은 것이다.”¹²⁾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언급은 약천의 문집을 간행할 때 남학명이 약천의 원고 거의 절반을 刪削해 버렸던 이유이면서 동시에 그의 문장관 역시 약천과 같은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약천이 비록 평생 동안 1,400여 편의 문장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핵심적인 것은 현재 문집에 전하는 720여 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약 27%에 해당하는 199편의 글이 남아 전하는 上疏文이 약천 문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약천 상소문의 구성 원리와 전개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章疏彙攷』와 『疏筭可則』에 수록되어 있는 약천의 상소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疏筭可則』(奎 7079)은 18세기 초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38張 1冊의 筆寫本 상소문 선집이다. 編者나 刊行地, 刊行者, 刊行年度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수록된 상소문의 저자로 보아 18세기 초에 간행된 것이 아닌가 추정되지만 분명하지 않다. 수록된 상소문에는 撰者의 이름이 없지만 版心에 協書해 놓은 ‘農·息·遲·藥’ 네 글자를 文集

12) 南鶴鳴, 『詞翰』, 『晦隱集』卷五. 「雜說」, “凡纂文集, 詩文宜從簡約, 而書牘最是流出胸中之文, 可以想見其人物, 如畫像之不取貌美, 只以恰似爲準之義也.”

과 대조해 보면 農岩 金昌協(1. 「玉堂應旨筭」, 2. 「陳所懷仍乞遞職疏」, 13. 「辭戶曹參議疏」), 息庵 金錫胄(3. 「請行審理筭」)의 상소문과 함께 藥泉의 상소문(5. 「請寢打圍疏」, 6. 「乞致仕疏」, 7. 「乞免再筭」, 8. 「乞致仕再疏」, 9. 「乞致仕仍辭祿俸疏」, 10. 「乞致仕三疏」, 11. 「因朴尙綱疏出城外待罪二疏」, 12. 「辭大司成疏」)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4번째로 편차되어 있는 「玉堂應旨筭」가 누구의 상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¹³⁾ ‘遲’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遲川 崔鳴吉이 아닐까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의 문집인 『遲川集』에는 이 상소문이 나오지 않는다. 모두 13편의 상소문 중 8편의 상소문이 약전의 것이다. 이 상소문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편집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당대까지 상소문 중 명문으로 알려진 것들을 모은 것이라 보인다.

『章疏彙攷』는 현재 2종류가 전하는데, 하나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章疏彙攷(TK4787.17-0411)』로, Harvard-Yenching Library에 있는 筆寫本 『章疏彙攷』의 복사본이다. 전체 9冊 중 2책에서 9책까지 모두 8책이 전하는 불완전본으로 編者나 刊行地, 刊行者, 刊行年度를 확인하기 어렵다. 2책에는 輔國, 崇品, 資憲, 嘉善, 3책에는 冢宰, 4책에는 亞銓, 三銓, 5책에는 本兵, 度支, 惠堂, 籌司, 戎垣, 6책에는 文衡, 兩館提學, 直提學, 內閣提學, 直閣, 待教疏, 7책에는 藩留(畿伯, 錦伯, 完伯, 嶺伯, 海伯, 箕伯, 東伯, 北伯, 松留, 沁留, 廣留, 華留)에 해당하는 인물의 상소가 수록

13) 규장각의 『疏筭可則』 해제에 따르면 4번째로 수록되어 있는 「玉堂應旨筭」가 遲川 崔鳴吉의 상소이고, 12번째로 수록되어 있는 「辭大司成疏」가 農岩 金昌協의 상소라고 했는데, 필자가 확인한 결과 崔鳴吉의 문집인 『遲川集』 초간본(奎6552, 장서각(4-6519))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보각본(한46-가405)에 「玉堂應旨筭」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 農岩 金昌協의 상소라고 한 「辭大司成疏」는 南九萬의 『藥泉集』 권 4에 수록되어 있는 상소였다. 현재로서는 版心에 協書해 놓은 「農·息·遲·藥」 중 遲가 遲川 崔鳴吉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분명하지 않다.

되어 있고, 8책에는 彈劾類, 情勢類, 處義嶽情類, 9책에는 敦寧, 請由, 省掃, 論事, 統制使, 直提學, 閔制, 勸農綸音, 辭疏類 등 종류에 따른 상소가 수록되어 있다.¹⁴⁾

다른 하나는 규장각본 『章疏彙攷(奎1752-v.1-9)』로 역시 編者나 刊行地, 刊行者, 刊行年度를 확인하기 어려운 筆寫本이다. 전체 9冊으로 되어 있으며, 규장각의 해제에 따르면 高宗때의 상소가 수록된 것으로 보아 高宗年間(1863-1907)인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에 간행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조선조의 유명한 상소문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왕의 綸音, 傳敎, 啓辭 등을 같이 모아 편집한 책이다. 原表題에 『琅本類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표제 옆에 小字로 『章疏彙攷』라고 적어놓았다. 원표제인 琅本類函은 좋은 글을 種類別로 모았다는 뜻인데, 그 옆에 소자로 章疏彙攷라고 써서 이 책의 성격을 章疏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1冊에는 大臣出仕, 出仕後乞遞, 大臣登筵辭免, 處義, 大臣附奏, 災異陳勉, 復膳, 藥都乞遞, 致仕, 大臣勉聖學, 大臣敦諭, 賓廳啓辭, 請節用, 請遞試官委官, 勳駕請寢에 관한 상소문이, 2冊에는 勸農綸音, 勉聖學, 典禮, 山林敦諭, 山林上疏, 省掃에 관한 상소문이, 3冊에는 輔國, 崇品, 資憲, 嘉善, 兵判, 兵判病辭, 戶判, 戶判病辭, 惠堂, 將任의 상소문이, 4冊에는 大提學, 兩館提學, 內閣提學, 直提學, 直閣, 待敎의 상소문이, 5冊에는 吏判, 亞銓, 三銓, 泮長, 副學, 宮啣의 辭職上疏文이, 6冊에는 自劾, 臺評後, 繡啓後, 陳情, 閔服, 服制에 관한 상소문이, 7冊에는 例, 乞郡, 災異陳勉, 復膳啓, 繡啓頭辭, 言事時政 등에 관한 상소문이, 8冊에는 八道の 觀

14)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원문 자료는 『章疏彙攷』의 2책부터 7책까지이다. 따라서 필자는 전체 8책 중 2책부터 7책에 해당하는 『章疏彙攷』만 직접 확인해 보았고, 8책과 9책은 접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본 『章疏彙攷』의 8책과 9책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察使와 開城, 江華, 廣州, 華城 留守의 上疏文이, 9冊에는 記事諸疏의 상소문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正祖의 筵敎가 덧붙여져 있다. 이 중 제3책은 모두 陞品・任命에 대한 辭退・辭職上疏文이고, 제5책은 수록된 각 직책의 辭職上疏文이며, 제6책은 自劾上疏이거나 事件性格에 따른 疏・啓이다.

국립중앙도서관본과 규장각본 『章疏彙攷』는 편집 체제와 수록된 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 제목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책이라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본 『章疏彙攷』 2책의 輔國에 해당하는 인물이 李義甲, 鄭晚錫, 趙萬永, 南秉哲, 洪良浩인데, 책의 첫머리에 있는 목차에는 南秉哲이 다음 항목인 崇品の 제일 처음에 잘못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규장각본 『章疏彙攷』 3책의 輔國 항목에는 吳載純, 李晚秀, 洪良浩의 상소문이 수록되어 있다. 두 책 모두에 실려 있는 홍량호의 상소문은 『耳溪集』 卷 20 疏筭에 있는 『辭陞輔國疏』로 같지만, 이와 같은 차이로 볼 때 두 책은 이름만 같은 전혀 다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살펴본 국립중앙도서관본 『章疏彙攷』에는 약천의 상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규장각본 『章疏彙攷』 역시 불완전한 본으로 보인다. 필사된 상소문들의 필체가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표제만 적어두고 내용에 해당하는 상소문을 기재하지 못한 항목이 적지 않다. 해당하는 적절한 상소문을 찾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미처 옮겨 적지 못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내용에 해당하는 상소문이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는 2~3면의 여백을 둔 것으로 보아 추후에 보완해 넣을 생각이었던 것 같다. 또 수록되어 있는 약천의 상소문과 문집의 상소문을 비교해 보면 글자의 改變과 漏落, 倒置가 상당수 보인다. 『疏筭可則』에 수록되어 있는 약천의 상소문을 문집의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조선조 당대에 『章疏彙攷』가 얼마나 읽혔는지는 모르지만, 그와 유사한 제목의 책으로 비슷한 시기에 간행되었다고 추정되는 『策略(일명 『疏章類抄』(奎7071-v.1-6))』, 『疏筭(古4206-45-v.1-2)』, 『疏筭(古4206-75)』, 『疏筭(古4206-76)』, 『疏筭(古5120-51-v.1-16)』, 『疏筭(想白古951.052-So13)』, 『疏筭輯要(古4253.5-5-v.1-14)』, 『疏筭輯類(古5120-50-v.1-25)』 등의 책이 규장각에 전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이 상소문을 모은 책이 조선 후기에 다수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중 『疏章類抄』는 모두 6책으로 上疏文을 초록해 수록하였으며, 수록한 상소문의 말미에 저자나 출처를 밝히고 있다. 『疏章類抄』의 경우 수록 항목은 다양하지만 수록된 상소문의 양이나 내용면에서는 『章疏彙攷』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章疏彙攷』에는 약천의 상소문이 모두 6편 수록되어 있는데¹⁵⁾ 1책에 「辭復拜領議政疏([再疏] 十月八日, 『藥泉集』 9)」, 「乞免筭([再筭] 三月十九日, 『藥泉集』 7)」, 「辭特拜領議政疏(甲戌四月五日在結城, 『藥泉集』 8)」, 「因災乞免仍陳戒筭(八月二日, 『藥泉集』 6)」 4편, 3책에 「辭兵曹判書疏([再疏] 九月一日, 『藥泉集』 5)」 1편, 7책에 「玉堂冬雷後陳戒筭(十一月一日, 校理呂聖齊, 吳斗寅聯名, 『藥泉集』 4)」 1편이다. 이 중 1책에 수록된 乞免筭은 『疏筭可則』에도 수록되어 있다. 『章疏彙攷』와 『疏筭可則』에 수록되어 있는 약천의 상소문을 모두 합해 저작 연대순으로 배열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은데, 이 표를 보면 『章疏彙攷』와 『疏筭可則』에 수록되어

15) 성당제는 그의 글(『藥泉 上疏文의 文藝美와 현실대응』, 『人文科學』 36,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p.228.; 『약천 남구만 문학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p.12.)에서 약천의 상소문이 『章疏彙攷』 1책에 5편, 『疏筭可則』에 7편 수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필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약천의 상소문은 『章疏彙攷』에 6편(1책 4편, 3책 1편, 7책 1편), 『疏筭可則』에 8편 수록되어 있었다. 성당제가 확인한 『章疏彙攷』와 『疏筭可則』이 필자가 확인한 책과 같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규장각이나 국립중앙도서관본일 경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있는 약천의 상소문 13편 중에서 모두 10편의 상소문이 辭職上疏文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章疏彙攷』와 『疏筭可則』에 수록되어 있는 약천의 사직상소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한다.

連番	題目	題目 細註	文集卷次	出典	備考
1	請寢打圍疏	孝宗戊戌六月三日 正言時	藥泉集 第三	疏筭可則	
2	玉堂冬雷後陳戒筭(校理呂聖齊, 吳斗寅聯名)	十一月一日	藥泉集 第四	章疏彙攷	
3	辭大司成疏	甲辰十月十二日	藥泉集 第四	疏筭可則	
4	辭兵曹判書疏[再疏]	九月一日	藥泉集 第五	章疏彙攷	
5	因災乞免仍陳戒筭	八月二日	藥泉集 第六	章疏彙攷	
6	乞免筭[再筭]	三月十九日	藥泉集 第七	章疏彙攷, 疏筭可則	重複
7	因朴尙綱疏出城外待罪疏[再疏]	閏五月十三日	藥泉集 第八	疏筭可則	
8	辭特拜領議政疏	甲戌四月五日在結 城	藥泉集 第八	章疏彙攷	
9	辭復拜領議政疏[再疏]	十月八日	藥泉集 第九	章疏彙攷	
10	乞致仕疏	戊寅正月二十二日	藥泉集 第十一	疏筭可則	
11	乞致仕仍辭祿俸疏	三月十八日	藥泉集 第十一	疏筭可則	
12	乞致仕疏	三月二十四日	藥泉集 第十一	疏筭可則	
13	辭遣承旨命偕來疏[三疏]	七月六日	藥泉集 第十一	疏筭可則	

Ⅲ. 上疏文의 構成과 藥泉 上疏文

『章疏彙攷』와 『疏筭可則』에 수록되어 있는 약천의 상소문이 대부분 사직상소문이라는 것을 조선조 당대의 상황과 결부해 보았을 때 그리 특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조선조 당대 상소문의 대부분이 사직상소문

이었기 때문이다. 김창협¹⁶⁾의 경우 그의 문집에 실린 60편의 상소문 가운데 49편이 사직상소문이었고, 이식이나 장유, 최명길, 김석주 등의 경우도 대체로 사직상소문이 상소문의 70~80%를 차지한다. 藥泉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의 상소문 199편 중 162편이 사직상소문에 해당한다¹⁶⁾. 사직상소문이 상소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선조 당대에 상소문이 고도의 정치적 담론 행위로 기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상소의 대부분이 정치적인 사안을 소재로 삼아 이루어지는 정치적 언술 행위라고 할 때, 자신의 직을 버리고자 사직을 청하는 사직상소문의 경우 몸담고 있는 정계를 떠나기 위해 쓰는 것이니 별다른 정치적 어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직상소문이 왕의 행위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간쟁소나 신하의 잘못을 탄핵하는 탄핵소, 정책이나 사건에 대해 비판하는 논사소, 특정 사건에 대해 변론하는 변무소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때 사직상소문의 정치적 위험성은 일반적인 여타의 상소문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된다. 그것은 이 경우 대부분의 사직상소문이 자신의 직을 사직하거나 왕이 내린 직책을 사양할 목적으로 왕에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직이라는 행위를 통해 왕을 압박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소문은 다양한 설득의 방법을 사용한다. 특히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비판의 대상이 존재할 경우 목적의 정당성과 비판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완곡하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게 된다. 상소가 사직상소문의 형태로 기술될 경우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그것은 사직상소문의 상소자 대부분이 진정으로 사직을 원해서라기보다는 사직상소문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결과를 얻고자 했기

16) 송혁기, 「사직상소문의 문학적 연구를 위한 일고」, 『한국한문학연구』 48, 한국한문학회, 2011, p.148.

때문이다. 따라서 사직상소문의 상소자가 상소를 작성한 진정한 의도가 왕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소 행위자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직상소문의 경우 일정정도 이상의 정치적 무게를 지닌 신하가 선택하는 정치적 모험과 결단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만큼 사직상소문의 작성은 상소문 작성의 일반적인 원칙과 범주를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¹⁷⁾.

1860년대 후반에 간행되었다고 보이는 編者 未詳의 筆寫本 14冊 『疏筭輯要(규장각, 古4253.5-5-v.1-14)』¹⁸⁾의 첫 번째 장인 「疏書筭凡例」와 다음 장 「疏筭大概式」을 보면 상소문 작성의 대략적인 방법과 투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소를 올릴 때는 “모관의 신 모는 진실로 황공하여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주상 전하께[섭정하는 왕세자에게는 ‘왕세자 저하’라고 한다] 백번 절하고[섭정하는 왕세자에게는 ‘두 번 절하고’라고 한다] 아뢴니[섭정하는 왕세자에게는 ‘글을 올린다’고 한다]. 삼가 엎드려”라고 한다. 결사에 모두 “신은 두렵고 간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 일에 대해 말할 때는 “신은 지극히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간절히 바라서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뢴니[옛날의 예를 살펴보면 사직할 때 혹 ‘신은 황공하고 두려워 떨림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두렵고 떨리며 황공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 …… 물러나기를 청할 때 ‘신은 성상을 향한 그리운 마음에 서러운 마음으로 방황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하늘같은 성상을 바라보며 지극히 간절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한다.]라고 한다.”¹⁹⁾

17) 윤재환, 「상소문을 통해 본 17세기 중반 남인 계열의 의식세계 -梅山 李夏鎭의 庚申 辭大諫疏-」, 『한국실학연구』 14, 한국실학학회, 2007, pp.222-223.

18) 이 자료는 필자가 최석의 논문 「奏議類 散文의 特徵과 展開樣相」(『東方漢文學』 31, 동방한문학회, 2006, p.219.)을 통해 존재를 인지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필자의 글을 완성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다.

모가 관직에 새로 임명되는 것은 분수로 보아도 맞지 않으니 감히 속마음을 툭 털어놓은 간청을 하여 내쫓아 벼슬을 갈아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임을 삼가 받들어도 따를 수 없으니 병이 따라 또 억지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감히 충심으로 내쫓아 벼슬을 갈아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오른쪽은 辭職이다²⁰⁾

이 부분은 상소문의 일반적인 套式語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상소문에서 이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여 상소문을 서술하는데, 두 번째 인용문은 사직상소문의 結辭에 관한 것이다. 이 인용문을 통해 상소문이 대체로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첫 번째 단락인 序頭 부분과 마지막 단락인 結辭 부분은 대부분 상투적인 용어로 구성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그 상투적인 용어가 왕과 왕세자라는 상소를 받는 대상과 상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개별 상소문의 특성은 순전히 두 번째 단락인 本辭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套式的 서술은 약전의 상소문에서 상당부분 약화되어 나타난다. 약전의 상소문에서 투식적 서술이 특히 약화되어 나타나는 부분은 첫 번째 단락인 序頭 부분이다.

삼가 아뢰입니다. 신이 지난달 29일에 政目을 보니, 신을 성균관 대사성에 제수하셨습니다. 신은 처음에는 놀라고 그 다음에는 의아해하다가 마침내는

19) 『疏書筭凡例』, 『疏筭輯要』, “上疏則曰, 某官臣某, 誠惶誠恐, 頓首頓首, 謹百拜[小朝則曰再拜], 上言于[小朝曰上書]主上殿下[小朝曰王世子邸下], 伏以. ○結辭皆云, 臣無任屏營祈懇之至. 言事曰, 臣無任激切屏營祈懇之至, 謹昧死以聞[按古例, 辭職或曰, 臣不勝惶恐震灼之至, 臣無任屏營, 隕越激切, 祈懇之至. …… 乞退或曰, 臣無任戀結宸極, 彷徨悵缺之至, 臣不勝瞻天望日激切屏營之至].”

20) 『疏筭大概式』, 『疏筭輯要』, “某官新除, 揆分不稱, 敢陳披瀝之懇, 冀蒙鑄斥之恩事. 重任, 末由承膺, 賤疾從又難強. 敢陳衷懇冀蒙鑄斥事. …… 右辭職”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찌 이 직책이 신의 몸에 내려질 것이라
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²¹⁾

삼가 아뢰입니다. 신이 어제 죽음을 무릅쓰고 하소연한 것은 실로 가슴속의
지극히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정성이 부족하여 성상께 도달하지 못하
고 도리어 우대하는 비답을 받아 더욱 분수에 넘치니, 너무나 두려워서 눈물
을 흘리며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²²⁾

신이 이달 4일에 사관이 가지고 온 教旨를 공경히 받으니, 여기에 “이제
경을 의정부 영의정으로 임명하니, 경은 하루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²³⁾

삼가 아뢰입니다. 지금 국가에 우려할 만한 일이 안팎으로 쌓여 있어 손꼽아
헤아려 보면 이루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도 가장 중대하면서도
끝내 반드시 구제할 방도가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당쟁의 화가
이어져서 사람들 마음이 분열되어 의론이 어긋나는 것이요, 하나는 팔도에 큰
흉년이 들어서 국고가 고갈되어 백성들이 앞으로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²⁴⁾

위에서 인용한 글은 『章疏彙攷』와 『疏筭可則』에 실려 있는 약천의 상

21) 南九萬, 「辭大司成疏 甲辰十月十二日」, 『藥泉集』 卷 4, “伏以臣於前月二十九日, 伏見政目, 除臣以成均館大司成者, 臣始焉駭異, 中焉疑惑, 終而覺慶, 罔知所處, 豈料此職.”

22) 南九萬, 「辭兵曹判書疏[再疏] 九月一日」, 『藥泉集』 卷 5, “伏以臣於昨日, 冒死呼籲, 實出肝膈之血懇, 而禽誠淺薄, 未達穹蒼, 反承優批, 益增非分, 惶怖涕泣, 不知所處.”

23) 南九萬, 「辭特拜領議政疏 甲戌四月五日在結城」, 『藥泉集』 卷 8, “臣於今月初四日, 祇受史官齋來有旨, 云今以卿拜議政府領議政, 卿其速乘駟上來者.”

24) 南九萬, 「辭復拜領議政疏[再疏] 十月八日」, 『藥泉集』 卷 9, “伏以方今國家之所可憂者, 若內若外, 有不勝俚指而數者. 然其事之最大而終必無可救之道者有二焉, 曰黨禍連仍, 人心波蕩. 而論議潰裂也. 曰八路大侵, 國儲罄竭, 而民將盡劉也.”

소문으로 순서대로 각각 약천의 문집 4권, 5권, 8권, 9권에 나오는 「辭大司成疏」, 「辭兵曹判書疏[再疏]」, 「辭特拜領議政疏」, 「辭復拜領議政疏[再疏]」이다. 대사성과 병조판서, 영의정을 사직하기 위해 쓴 상소문의 서두 부분에 해당하는데, 4편의 글 서두 부분이 모두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4편의 글에서 “某官臣某, 誠惶誠恐, 頓首頓首, 謹百拜, 上言于主上殿下, 伏以.”라고 하는 상소문의 상투적 표현을 지키고 있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같은 인물이 쓴 글의 경우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식적 유사성조차 찾기 어렵다. 특히 세 번째 상소인 「辭特拜領議政疏」는 왕의 敕旨에 나오는 내용을 상소의 序頭로 사용하고 있다. 4편의 상소 모두 약천이 쓴 것이 분명하지만 각각의 상소 序頭 부분은 당시 약천이 처해 있던 상황에 따라 그 시작을 각기 달리한다.

삼가 바라건대, 신에게 새로 제수하신 職名을 속히 체차하셔서 관직을 소중히 하고 신의 분수를 편안히 하게 해 주신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지극히 황송하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²⁵⁾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다시 깊이 살피시어 신에게 새로 제수한 직명을 속히 환수하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신은 지극히 절박하고 위대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²⁶⁾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신을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운 명령을 환수하여 하늘처럼 비호해 주시는 인자함이 신 같이 보잘 것 없는 미물에 미치게 하시고,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을 다시 뽑으셔서 나라

25) 南九萬, 「辭大司成疏 甲辰十月十二日」, 『藥泉集』 卷 4, “伏乞將臣新授職名, 亟賜遞改, 以重官方, 以安愚分, 公私不勝幸甚. 臣無任惶懼戰灼之至.”

26) 南九萬, 「辭兵曹判書疏[再疏] 九月一日」, 『藥泉集』 卷 5, “伏乞聖明更加諒察, 亟命收還臣新授職名, 千萬幸甚. 臣無任窘迫危蹙之至.”

의 일을 다행스럽게 하소서. 신은 지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
다.²⁷⁾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신의 간절한 심정을 굽어 살펴 새로 내
린 명령을 속히 회수하신다면 국사에도 매우 다행이고 신의 분수에도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신의 집 하인이 마침 사람들이 꺼리는 병이 있어서 소장을
써서 보내어 숙직하는 방에 두었다가 하루가 경과한 뒤에 올리게 하느라고
이처럼 지체되었으니, 지극히 황송하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²⁸⁾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상소문 4편의 結辭 부분이다. 序頭 부분과 달리
내용과 상소문 일반의 투식적 용어를 사용하여 투식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가 4편의 상소문에서 사용한 “臣無任惶
隕戰灼之至”, “臣無任窘迫危蹙之至”, “臣不勝震慄戰灼之至”, “尤不勝
戰灼之至”는 『疏筭輯要』의 「疏書筭凡例」와 「疏筭大概式」에서 살펴본
사직상소문 結辭 부분의 보편적 투식어인 “臣不勝惶恐震灼之至, 臣無任
屏營, 隕越激切, 祈懇之至.”나 “臣無任戀結宸極, 彷徨悵缺之至, 臣不勝
瞻天望日激切屏營之至”, “某官新除, 揆分不稱, 敢陳披瀝之懇, 冀蒙鑄斥
之恩事.”나 “重任, 末由承膺, 賤疾從又難強, 敢陳衷懇冀蒙鑄斥事.”를 인
용하거나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序頭와 結辭 부분에서 보이는 투식어 사용의 차이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약천이 자신의 사직상소문 結辭 부분에서 관습적 套
式語를 사용한 것은 그가 형식적이고 전형적인 글쓰기에 익숙하다거나 그

27) 南九萬, 「辭特拜領議政疏 甲戌四月五日在結城」, 『藥泉集』 卷 8, “伏乞聖明哀憐閔
惻, 收回恩召, 使天覆之慈, 及於一物, 而更卜賢德, 以幸國事. 臣不勝震慄戰灼之至.”

28) 南九萬, 「辭復拜領議政疏[再疏] 十月八日」, 『藥泉集』 卷 9, “伏乞聖明俯諒血懇,
亟賜收回新命, 國事幸甚, 愚分幸甚. 臣之家中隸人, 適有拘忌之疾, 書疏以送置直
房, 使之經宿以上, 稽延至此, 尤不勝戰灼之至.”

와 같은 글쓰기를 추구해서라기보다 사직상소문이라는 글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듯하다. 그것은 이면에 감춰진 의도야 어찌되었든 표면적으로 사직을 목적으로 한 글에서 약천이 할 수 있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사직의 허락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습적인 용어보다 더 적절한 것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직을 그만두겠다는 신하의 입장에서 ‘신은 지극히 황송하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은 지극히 절박하고 위태로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신은 지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황송하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그 표현의 상투성과 관습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이상 사직을 청하는 자신의 표면적 요구를 절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낼 마땅한 다른 용어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투식적 용어가 지니고 있는 표현의 절실함과 함께 약천에게 이와 같은 용어의 사용을 유도한 것은 그의 文章觀이었다고 보인다. 만약 약천이 이 표현을 넘어서는 새로운 표현을 찾고자 했다면 그는 新奇하고 奇怪하며 險僻하고 難澁한, 기발한 표현을 찾아야 하는데, 약천은 그와 같은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이 문장의 體制와 格調를 떨어뜨려 文道를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사직상소문의 結辭에서 약천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나 용어는 그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직상소문 일반의 투식적 용어와 표현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結辭의 구성은 模倣이나 因襲, 전통적 상소문 구성의 추구나 보수적인 문장 창작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직을 청하는 그 자신의 요구를 강하게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상소문의 本辭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록해 놓은 글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행위의 수단이자 결과물이라는 상소문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 보인다. 상소를 올려야 하는 정치적 혹은 개인적인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나 내용이 다를 경우, 혹은 상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상소의 의도가 다를 경우 상소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소 本辭의 구성 원칙이나 사용 용어를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개별 상소문의 특성은 순전히 두 번째 단락인 상소문의 本辭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약천 사직상소문의 本辭 역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IV. 藥泉 上疏文 展開 樣相의 實在

사직상소문 일반의 표현과 견주어 본 藥泉의 辭職上疏文은 序頭 부분에서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序頭와 本辭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序頭 부분에서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형식적이거나 상투적인 표현과 용어를 배제하고 현재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서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약천의 사직상소문은 약천이라는 동일한 인물에 의해 기술되었지만 다양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章疏彙攷』와 『疏筭可則』에 실려 있는 약천의 상소문을 통해 약천 상소문의 本辭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하겠다. 논의의 연속성과 편의를 위해 앞 장에서 살펴본 4편의 상소문 중 약천 상소문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辭大司成

疏」와 「辭兵曹判書疏[再疏]」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序頭] 삼가 아웁니다. 신이 지난달 29일에 政目을 보니, 신을 성균관 대사에 제수하셨습니다. 신은 처음에는 놀라고 그 다음에는 의아해하다가 마침내는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찌 이 직책이 신의 몸에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本辭]

[1. 주장] 신은 ①어리석고 비루하여 한 가지도 남들과 같지 않은데, 외람되어 큰 은혜를 입어 깨끗한 벼슬길에 올라 앞뒤로 지위를 도둑질하였으니 모두 걸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②나아가는 것을 탐하고 영화를 사모하여 버젓이 얼굴을 들고 대열에 나왔으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평상시에도 늘 두려운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새로 내리신 명령은 이 얼마나 중요한 선발이며 얼마나 중대한 임무입니까. 그런데 ③자신의 분수를 헤아리지 않고 오히려 다시 외람되어 이 자리를 차지한단 말입니까.

[2. 논거] 이에 신이 만약 선배들이 규례를 따라 면직을 청한 말을 비유하여 끌어다 댄다면 또한 ④다소나마 직임을 감당할 수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사양하는 말을 흉내 내는 듯하기에, 신은 감히 무식한 말을 많이 늘어놓아 성상께 번거롭게 아뢰지 않고 다만 ⑤지금 조정에 있는 신하들을 가지고 아뢰겠습니다. 오랫동안 명망을 받은 선배들이 적지 않은데 신이 후생으로서 ⑥순서를 뛰어넘어 갑자기 승진한다면 ⑦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화합하고 선비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신의 재주와 학식이 부족함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과거에 급제하여 출신한 지 채 10년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儒巾을 쓰고 學宮에 있는 자들은 대부분 신과 평소애 동등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신이 갑자기 스승의 자리를 차지하여 이리이리 말하고자 한다면 단지 신의 마음에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⑧저 유생들 또한 어찌 손가락질하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신이 만약 은혜를 사모하고 위엄을 두려워하여 염치를 무릅쓰고 반열에 나아간다면, 신 한 몸을 그르치는 것이야 걱정할 것도 못 되지만 ⑨관직을 욕되게 하고 조정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닐 것

입니다.

[3. 주장의 강조] 신은 여러 날 동안 위축되어 엎드려 있으면서 삼가 ⑩공론이 일어나 논박하여 바로잡아 주기를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으니, 또 한 가지 괴이한 일입니다. 만약 다시 지체하여 스스로 탄핵하여 면직되지 않는다면 ⑪현자를 등용하는 데 방해가 되고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또 한 가지 죄를 더하겠기에, 감히 천지 부모와 같으신 성상께 애처롭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結辭] 삼가 바라건대, 신에게 새로 제수하신 職名을 속히 체차하셔서 관직을 소중히 하고 신의 분수를 편안히 하게 해 주신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지극히 황송하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²⁹⁾

이 상소는 약천이 36세 되던 현종 5년(1664) 10월 12일 成均館 大司成을 사직하기 위해 올린 상소이다. 이 해 9월 29일 약천이 홍중보·김좌명·김만기·장선징·심재·이일상·이경익·이흥연·우창직·홍만형·권대운 등과 함께 새로운 직책을 除授 받았으니³⁰⁾ 대사성 직에 임명된 지

29) 南九萬, 『辭大司成疏 甲辰十月十二日』, 『藥泉集』 卷 4, “伏以臣於前月二十九日, 伏見政目, 除臣以成均館大司成者. 臣始焉駭異, 中焉疑惑, 終而蹙蹙, 罔知所處. 豈料此職, 乃加此身哉. 臣愚駭蒙陋, 百不如人, 而猥荷鴻渥, 致身清塗, 前後忝竊, 無非不似. 而貪進戀榮, 強顏廁迹, 顧念平生, 每切慄慄. 況茲新命, 是何等重選何等重任. 而不揣分量, 猶復叨冒哉. 今臣若譬引前輩據例辭免之語, 則亦近於稍可承當而倣效飾辭者, 故臣不敢廣陳蕪說, 以煩宸聰, 而只以目今在朝諸臣言之. 舊次宿望, 不爲不多, 而臣以後生, 越序驟進, 其何以協物情而鎮士心乎. 且臣才學之減裂, 已不足言, 而脫身場屋, 未及十年. 卽今冠章甫而處儒宮者, 多臣平日之等夷, 今臣猝據師席, 欲有云云, 則不但臣心之愧慙, 彼諸生亦豈不相指而目笑乎. 臣若懷恩畏威, 冒沒就列, 則一身顛沛, 非所敢恤, 其辱名器而羞朝廷, 非細故也. 臣縮伏屢日, 佇俟公議之駁正, 而尚今無聞, 又一怪事. 若復遲回, 不自劾免, 則妨賢曠職, 又添一罪, 茲敢哀籲於天地父母之下. 伏乞將臣新授職名, 亟賜遞改, 以重官方, 以安愚分, 公私不勝幸甚. 臣無任惶懼戰灼之至.”

30) 『顯宗實錄』 卷 9, 현종 5년 9월 29일, “丁巳, 以洪重普爲戶曹判書, 金佐明爲知義

꼭 13일 만이다. 이 때 약천이 사직을 청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약천이 28세가 되던 효종 7년 8월 別試文科에 乙科로 합격하고, 그 해 11월에 가주서로 뽑힌 뒤 특지로 전적으로 승진하였으니 만 8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만에 대사성 직에 오른 것이다. 이 상소의 序頭와 結辭 부분은 앞 장에서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두와 결사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本辭 부분만을 살펴 약천 상소문의 전개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상소의 본사 부분은 모두 3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주장-논거-주장의 강조인데, 짝막하면서도 상당한 짜임새가 엿보인다. 또 본사의 첫 부분에서 바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주장의 근거 제시 이후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하며 본사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 상소는 자신의 주장을 중심으로 서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사직상소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유나 비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상소는 諫諍, 彈劾, 論事, 辨誣와 같은 특별한 목적 없이 자신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사의 첫 부분에서부터 바로 약천은 상소 작성의 목적을 밝혔다. 주장을 위한 사전 준비나 전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주장 부분의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한데, 하나는 자신의 문제점이고, 다른 하나는 제수 받은 대사성이라는 직책의 위상이다. 따라서 주장의 개요는 자신의 문제점으로 보아 대사성 직책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천이 밝힌 자신의 문제점은 밑줄 친 ①과 ②이다. 어리석고 비루하며, 남 같은 점이 한 가지도 없으면서, 벼슬에 나가는 것을 탐하고 영화를 사모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

禁, 金萬基爲副應教, 張善徵爲校理, 沈粹爲副修撰, 李一相爲禮曹判書, 李慶億爲副提學, 南九萬爲大司諫, 李弘淵爲承旨, 禹昌績爲持平, 洪萬衡爲待教, 特除權大運爲右尹.”

제가 있기 때문에 약전은 스스로 자신의 벼슬길이 외람되이 큰 은혜를 입은 것이고 자신에게 걸맞지 않은 것이며 늘 두려운 것이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성 같이 중요한 선발과 중대한 임무는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전은 마지막으로 밀줄 친 ③에서 대사성 직은 분수에 넘치는 외람된 직이라고 했다. 주장으로 상소의 전체 내용이 정리된다는 점에서 다른 부분은 모두 군더더기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다음 부분에서 약전의 자기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는데, 첫 부분에서 논거의 제시 방법이 과단하고 직접적이라는 것과 함께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약전은 일반적인 상소의 형식을 따를 경우, 즉 ‘선배들이 규례를 따라 면직을 청한 말’을 따를 경우 밀줄 친 ④와 같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사양한다고 여길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약전은 밀줄 친 ⑤와 같이 지금 조정에 있는 신하들을 예로 들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형식이나 규범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글을 쓰겠다는 것이다.

약전의 논거는 밀줄 친 ⑥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른 말들은 모두 이 부분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다. 그가 사직을 주장하는 이유는 ‘후생으로 순서를 뛰어넘어 갑자기 승진한’ 것이다. 이 문제는 밀줄 친 ⑦부터 ⑨까지의 문제를 일으킨다. 사람들의 마음을 화합하고 선비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으며, 유생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받게 되어 관직을 욕되게 하고 조정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전은 사직을 청한다는 말이다. 사직의 이유와 사직하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선명하다.

논거의 제시 이후 약전은 자신의 주장을 다시 제시했다. 약전이 다시 한번 강조한 사직의 이유는 밀줄 친 ⑩로 정리된다. 어진 인물을 등용하는데 방해가 되고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또 다른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약천이 청한 사직의 이유는 분명하고, 그가 직책에 남아 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역시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 이 상소의 주장과 논거가 선명한 만큼 주장의 문제점 역시 또렷하게 보인다. 약천의 주장은 밑줄 친 ③의 분수에 넘치는 외람된 직책인 대사성 직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고, 대사성 직이 분수에 넘치는 외람된 직책인 이유는 밑줄 친 ⑥의 순서를 뛰어넘는 갑작스러운 승진이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상소의 내용을 정리하면 “순서를 뛰어넘는 갑작스러운 승진이어서 대사성 직이 분수에 넘치기 때문에 사직을 청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현종이 인정할 수 있을까. 더욱이 약천은 밑줄 친 ⑩에서 公論으로 잘못된 벼슬을 바로잡아 주도록 기다렸지만 아무 말이 없어 괴이하다고 했다. 뒤집어 말한다면 사직을 청하는 약천의 개인적인 문제점이나 사직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모두 약천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만약 약천이 진정으로 사직을 원했다면 최소한 밑줄 친 ⑩은 거론하지 않았어야 했다.

약천의 연보에 따르면 약천은 이 해 10월 사간원 대사간에 제수되었고, 11월 병조 판서 金佐明의 파직을 청하였다가 상의 뜻을 거슬러 체직되었다고 했다. 이 상소로 사직하지 않은 것이다. 단순하고 평이하지만, 그래서 단도직입적이고 간결하지만 상소의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선명하다. 상소의 일반적인 규범보다 사직을 청하는 자신의 주장과 주장의 다양한 근거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임금의 선택을 요구했다. 약천이 상소에서 밝힌 주장과 제시한 근거에 대한 임금의 선택을 강요한 것이다. 이 상소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약천의 의도가 순서를 넘어서는 갑작스러운 승진에 대한 주변의 비방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序頭] 삼가 아립니다. 신이 어제 죽음을 무릅쓰고 하소연한 것은 실로 가슴속의 지극히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정성이 부족하여 성상께 도달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대하는 비답을 받아 더욱 분수에 넘치니, 너무나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本辭]

[1. 발단] 모든 사람의 자질을 한 사람이 다 구비할 수 없으니, 조정에서 인물을 등용할 때에는 각기 그 장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滕나라와 薛나라의 大夫가 될 수 없는 자가 趙氏와 魏氏의 家老가 될 수도 있으며, 의정부의 높은 지위에 있을 만 한 자가 군대의 일을 맡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①지위의 高下와 일의 難易는 따지지 말고 오직 그 사람의 재주와 그릇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취할 뿐이니, 이것이 예로부터 사람을 등용하는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2. 주장] 그런데 요즈음에는 ②지위와 서열의 오해를 따지기도 하고 품계의 비슷함을 따지기도 하여 물고기 꿩미처럼 나란히 나아가서 전혀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六曹를 두루 돌아다니고 내외직을 두루 거치니, 이것은 참으로 三代 시대에 문무를 다 갖춘 재주 있는 사람도 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평범한 한 사람의 몸에 모두 책임지우고 있습니다. 사람 쓰기를 이처럼 하니, 어찌 실효가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오늘날 나라 일이 날로 무너져서 수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③신이 외람되어 차지한 자리는 더욱더 비슷하지도 않아 신의 실제와 잘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드시 사방에 웃음거리가 되고 국가에 누를 끼칠 것이니, 어찌 미천한 신 한 몸만의 불행일 뿐이겠습니까.

[3. 논거] 옛날 王述은 쑤나라가 지극히 쇠약할 때를 만났으나 관직을 사양해야 할 때에는 기필코 받지 않았으니, 이는 왕술이 스스로 ④자신의 재능을 헤아려 진퇴의 예절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조정에서도 그의 진실한 뜻을 헤아려서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의리가 오랫동안 폐지되어 아랫사람은 사직하는 상소로 교체되는 자가 없고 윗사람은 사직하는 상소로 체적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하나가 되어 오늘날 우리 조정은 도리어 쇠약한

진나라 때만도 못하니, 어찌 몹시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4. 주장의 강조] 신은 노둔하고 용렬하여 한 가지 일도 국가에 보답할 만한 것이 없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혹시라도 이러한 충정을 드러냄으로써 천지 부모와 같으신 성상의 가없게 여겨 주심을 입어 이 사직 상소로 인해 체차함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 뒤로 ⑤재주가 없으면서도 외람되이 승진하는 자들이 신을 원용하여 규례로 삼아서 감히 함부로 벼슬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니, 이 한 가지 일로 행여 성상의 크나큰 은혜에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結辭]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다시 깊이 살피시어 신에게 새로 제수한 직명을 속히 환수하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신은 지극히 절박하고 위태로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³¹⁾

이 상소는 약천이 54세가 되던 숙종 8년(1682) 9월 1일 올린 상소로, 兵曹判書를 사직하고자 하는 두 번째 상소이다. 8월 23일 병조판서에 임명되었고,³²⁾ 8월 27일에 첫 번째 상소를 올렸으니, 병조판서에 임명된 지

31) 南九萬, 『辭兵曹判書疏[再疏] 九月一日』, 『藥泉集』 卷 5, “伏以臣於昨日, 冒死呼籲, 實出肝膈之血懇, 而禽誠淺薄, 未達穹蒼, 反承優批, 益增非分, 惶怖涕泣, 不知所處. 凡人之資材, 不能皆備, 朝廷用人, 各隨其長. 故不足爲滕薛大夫者, 或可爲趙魏老, 合置廊廟者, 或不能任軍旅. 毋論位之高下事之難易, 唯取其才器之當否, 此自古用人之常法也. 其在今日, 或以其位次之久, 或以其資級之近, 進若魚貫, 漫無識別. 周流六部, 徧歷內外, 此實三代全才之所難能, 而並責於尋常一人之身. 用人如此, 安有實效. 此今日國事所以日漸頹敗, 莫可收拾者也. 然於其中, 臣之所叨, 尤不近似, 大不著題. 必將傳笑四方, 貽累國家, 豈特徵臣一身之不幸而已哉. 昔王述當晉室極衰之際, 而然其辭官, 必於不受, 此非但王述自能量已, 成其進退之節, 其時朝廷亦能諒其誠意, 不强其所不能故也. 今則此義久廢, 下無以辭而得遞, 上無因辭而許遞, 誠僞虛實, 混爲一途, 今日朝廷, 反不如衰晉之時, 豈不大可寒心哉. 臣之鶩劣, 自知無一事可以報國者. 若或暴此深衷, 得蒙天地父母之哀憐, 許其因辭改職, 則此後匪才而濫進者, 或可援以爲例, 而不敢冒處, 切願以此一節, 庶爲酬報鴻造之萬一. 伏乞聖明更加諒察, 亟命收還臣新授職名, 千萬幸甚. 臣無任窘迫危蹙之至.”

32) 『肅宗實錄』 卷 13, 숙종 8년 8월 23일, “兵曹判書鄭載嵩免. 載嵩之爲兵判屬耳, 而

8일, 첫 번째 사직상소를 올린 지 꼭 4일 만이다. 83세까지 살았던 약천의 생애 중반에 나온 상소이고, 병조판서라는 고위 직책의 사직을 청한 상소라는 점에서 그의 상소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틀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상소문과 같이 이 상소의 序頭와 結辭 부분도 앞 장에서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本辭 부분만 보도록 한다.

본사 부분을 살피기 전에 이 상소가 두 번째 올린 상소이고, 상소의 서두에서 약천이 “우대하는 비답을 받아 더욱 분수에 넘치니”라고 한 점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8월 27일 병조판서의 사직을 청한 첫 번째 상소에 대해 숙종은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경의 재주와 명망이 일찍 드러났으니, 이번의 등용은 늦다고 이를 만하다. 나의 뜻이 먼저 정해졌고 공론이 모두 같은데, 어찌 지나치게 사양하는가. 장관의 직책을 오랫동안 비워 두면 대응할 일에 장애가 많을 것이니, 경은 안심하여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³³⁾고 했다. 이로 보아 숙종은 약천의 첫 번째 상소에 대해 자신의 등용이 늦었다고 생각한 약천의 불만 표시 정도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약천이 진정 사직을 원한다면 다시 상소해야 하고, 또 첫 번째 상소에 대한 숙종의 인식을 확인했으니 그의 두 번째 상소는 더 절실해야 한다.

以病力辭者, 蓋新設禁衛營, 而以本兵兼爲大將, 載嵩家法, 素避將兵之任故也. 又有一大臣於公會言, 爲兵判者, 今乃出矣. 時, 南九萬纔闋服, 蓋指是而言也. 大臣知其難强, 請遞之, 遂以九萬代之. 柳尙運爲大司諫. 九萬才學, 雖優於載嵩, 而器度則不及矣.”; 『肅宗實錄補闕正誤』卷 13, 숙종 8년 8월 23일, “戊戌. 以南九萬爲兵曹判書. 九萬當官盡職, 所在蔚有成效. 及授本兵, 辟許堉爲郎, 伏奸宿蠹, 靡不應櫛, 用度出入, 規制井井, 未期年府庫充牣, 至積羨布十五萬疋. 又收拾武士, 用舍公明, 時議怡然稱之. 近歲治兵曹者, 無能及焉.”

33) 南九萬, 「辭兵曹判書疏 八月二十七日」, 『藥泉集』卷 5, “答曰, 省疏具悉卿懇. 卿之才望夙著, 今茲登庸, 亦云晚矣. 予志先定, 公議僉同, 何用過辭. 長官久缺, 酬應多滯, 卿其安心勿辭, 從速察職.”

상소의 본사는 발단으로 시작하여 주장의 강조까지 모두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약천의 문장관으로 보아 이 상소에 앞서 살펴본 상소에서 없던 발단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상소의 기본 틀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소의 논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발단 부분의 주된 내용은 밑줄 친 ①에서 볼 수 있듯이 인재 등용의 기본 원칙에 대한 강조이다. 그가 인재 등용의 원칙을 강조한 이유는 표면적으로 모든 사람의 자질을 한 사람이 다 구비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현재 조정의 인재 등용이 그렇지 못하다는 예측을 하게 된다.

다음 부분인 주장에서 약천은 그와 같은 예상을 충족시켜 준다. 예측과 구현이라는 순차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주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장 부분에서 약천이 밝히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재 조정의 인재 등용이 가진 문제점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등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등용이 잘못되었다고 한 부분에서는 그와 같은 잘못된 등용의 폐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예측의 구현 부분이 다시 전체적인 문제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순차적 서술 구조가 전체에서 개인으로 축소되는 집약적 구조로 강조된다. 순차적이면서도 집약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약천의 주장은 선명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얻게 된다. 약천이 밝히고 있는 인재 등용의 문제는 밑줄 친 ②와 같이 능력을 살피지 않고 지위와 서열, 품계를 따져 서열에 따라 차례로 승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약천이 느끼는 문제는 밑줄 친 ③에 나온다. 자신은 전혀 능력이 없는 데 병조판서에 임명되어 능력과 직책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밑줄 친 ②만 보면 이 상소의 문제 제기가 앞의 상소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밑줄 친 ③과 8월 27일 상소에 대한 숙종의 비답을 고려해 보면 밑줄 친 ③ 부분이 약천의 불만 표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약천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이 말은 뒤집어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도 서열에 따라 차례로 승진하는데, 나는 아직 이런 자리에 오르지 못했으니 나는 능력 없는 사람보다도 못하다. 그러니 사직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순차적이고 집약적인 구조의 마지막에 밑줄 친 ③이 놓인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을 선명하게 강조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이 부분의 내용을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숙종이 앞에서 본 것과 같은 비답을 보낸 것이라 생각된다.

주장의 다음에 나오는 논거에서 약전은 쯔나라 王述의 고사를 인용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星湖僊說』에 “쯔나라 王述은 관직을 제수 받으면 사양하지 않았고, 사양할 것이면 반드시 받지 않았다.³⁴⁾”라고 했는데, 이 왕술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약전이 하고자 했던 말은 밑줄 친 ④에 있는 “자신의 재능을 헤아려 진퇴의 예절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조정에서도 그의 진실한 뜻을 헤아려서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자신의 의지와 조정의 결정이 같았기 때문에 왕술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약전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상소로 사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우리 조정은 쇠약한 쯔나라보다 못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사직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그 문제의 책임이 자신이 아니라 조정, 더 나아가 임금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분을 통해 약전은 임금의 선택을 강요한 것이다.

논거 다음에 있는 주장의 강조는 앞서 본 주장의 내용을 반복하여 주장

34) 李瀾, 「辭官」, 『星湖僊說』 권 7, 「人事門」, “晉王述受職不讓, 其所辭必不受. 及爲尙書令, 子坦之白述, 故事當讓. 述曰汝謂我不堪耶. 曰非也, 克讓美事. 述曰既謂堪之, 何謂復讓. 人言汝勝我, 乞不及余.”

의 타당성과 가치를 강화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밑줄 친 ⑤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재주가 없으면서도 외람되이 승진하는 자들이 신을 원용하여 규례로 삼아서 감히 함부로 벼슬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을 자신의 사직 상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얻게 될 국가적 이익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밑줄 친 ③과 같이 살펴보면 이 말은 “자신의 사직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재주 없는 고위직 관리들, 서열에 따라 차례차례 승진하여 자리나 지키고 있는 관료들을 위한 본보기”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썸 되면 이 상소의 목적이 진정 사직을 청한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워진다.

앞에서 살펴본 상소와 함께 이 상소의 본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현종과 숙종이 그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이 상소에 대한 숙종의 비답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약천은 이 상소 이후 遞職되지 않았다. 오히려 2년 뒤인 숙종 10년(1684) 1월 우의정으로 승진하였다. 우의정에 除授된 이후로도 여섯 번에 걸쳐 사직상소문을 올렸지만, 약천의 상소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소는 목적을 지닌 글이다. 특히 사직상소는 사직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 글이다. 그렇다면 약천의 상소는 상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고, 그 의도를 실현하지 못한 것이다. 약천의 상소가 당대부터 후대까지 문인들에게 인정받고 人口에 膾炙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약천의 상소는 당대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뛰어난 글이라는 인정을 받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살펴본 약천의 사직상소가 사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약천은 정녕 사직을 원했지만 그 뜻을 임금에 받아주지 않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약천은 사직상소를 올리며 관직에 나가지 않고 있었던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政務를 관장했고, 국가의 時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시기 상소를

통해 능력이 부족하다는 수많은 말과 병을 건딜 수 없다는 수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은 이어졌다. 그런 점에서 약전의 사직상소가 지니는 본질적인 의도는 사직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굳건한 임금의 신임 확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간결하고 명확하며 집약적인 서술 속에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글로 자신의 속내를 담아내는 상소를 통해 그 자신의 의도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형식적인 수사나 표현의 아름다움을 배제한, 어떻게 보면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 서술 기법이 오히려 그의 眞情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약전의 상소가 보여주는 서술 기법과 전개의 양상이 당대부터 지금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신하의 신분에서 임금의 선택을 요구하면서도 거침없이 당당한 글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V. 結論

약전은 당대부터 四大疏筭家로 불렸다고 한다. 문학에 주력하지도 마음을 두지도 않았다고 했지만, 그의 문장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호평이었다. 그와 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던 노론계열이 주도하여 편찬한 『숙종실록』에서 그에 대해 “성품이 褊狹하고 강박하며 각박한데, 강직하여 패려긋고 뽐내는 행동을 좋아했다.”고 하고 “晩年에 庶子를 위하여 産業을 경영했는데, 鄙陋하고 猥雜한 일이 많아서 賤宗의 侮辱까지 받게 되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라고 하여 극단적인 비방을 가했지만 “남구만은 젊어서부터 文才가 있었고, 筆法도 공교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여 그의 문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였다. 인격적인 모독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비판

을 가했지만, 그의 글이 지녔던 聲價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 문학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약전은 그 자신의 문학관이나 문장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이 없다. 단지 그가 남긴 몇 편의 글을 볼 때 약전이 생각한 문학, 문장에 대해 추론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약전은 문장이란 그 스스로가 익힌 학문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사람됨과 같은 것이니, 그 사람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사람이 지은 글의 아름다움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좋은 글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적인 내면의 수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약전은 좋은 글, 아름다운 문장은 화려한 수식이나 공교로운 묘사가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소박하고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고 여겼다. 약전 계열 문학 비평의 특징으로 ‘意’와 ‘質’을 설정한 논의³⁵⁾ 역시 이와 같은 약전 문장관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약전의 상소문 역시 이와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사직상소문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약전의 상소문 대부분이 진정 사직을 위해 쓴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의 사직상소문은 사직보다 사직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에 대한 임금의 신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수단적 기능을 한 것이라 보인다. 그의 상소문은 상소문 일반의 투박어를 배격하고 자신의 현재 상황과 처지에 따라 글을 구성했다. 단순하고 평이 하면서 단도직입적이고 간결하지만 상소의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선명하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구체적이고도 명확하며 집약적인 서술 속에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글로 자신의 속내를 담아내어 그 자신의 의도를 달성했다. 형식적인 수사나 표현의 아름다움을 배제하여 거칠고 투박해 보이기까지 한 서술 기법이 오히려 그의 의도를 달성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상소문

35) 송혁기, 「老·少 分岐期の 學的 地形과 南九萬 계열 소론계의 문학비평」, 『고전과 해석』 10, 고전문학한문학회, 2011, pp.22-24.

의 구성과 전개로 보았을 때 그의 문장관과 상소문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약천의 상소문이 지금까지도 명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이렇게 거침없이 당당한 글로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면서 임금의 선택을 요구하여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南九萬, 『藥泉集』
 南克寬, 『夢嚙集』
 南鶴鳴, 詞翰, 『晦隱集』
 『疏筭可則(奎 7079)』
 『疏筭輯要(古4253.5-5-v.1-14)』
 『肅宗實錄補闕正誤』
 『肅宗實錄』
 李 瀾, 『星湖僊說』
 『章疏彙攷(TK4787.17-0411)』
 『章疏彙攷(奎1752-v.1-9)』
 『顯宗實錄』

2. 논문 및 단행본

- 성당제, 「藥泉 上疏文의 文藝美와 현실대응」, 『人文科學』 36,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p.228.
 ———, 「약천 남구만 문학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p.12.
 송혁기, 「사직상소문의 문학적 연구를 위한 일고」, 『한국한문학회』 48, 한국한문학회, 2011, p.148.
 ———, 「老·少 分岐期の 學的 地形과 南九萬 계열 소론계의 문학비평」, 『고전과 해석』 10, 고전문학한문학회, 2011, pp.22-24.
 윤재환, 「상소문을 통해 본 17세기 중반 남인 계열의 의식세계 -梅山 李夏鎭의 庚申

辭大諫疏-」, 『한국실학연구』 14, 한국실학학회, 2007, pp.222-223.

최 식, 『奏議類 散文의 特徵과 展開樣相』, 『東方漢文學』 31, 동방한문학회, 2006, p.219.

Abstract

The Construction principles and Developments of the petition to the king of Yakchon Namguman

—Focussing on the resignation petition to the king in 『Jangsohuigo』 and 『Sochangachik』—

Yoon, Jae-hwan

Yakchon Namguman is a man who lived 83 years from the 7th year of king Injo(1692) until the 37th year of king Sukjong(1711). He was a man who stood in the middle of the Soron affiliation at that time, but left 276 poems and 726 pieces of proses in his not a few anthology of 34 volumes and 17 book. Especially, all of the anthology was composed of proses, and assessments about the proses were considerable since his lifetime. But except for his anthologies volume 1 and 2 that contain poems, the others are all consisted of proses. And among those proses, petitions take up most of the quantity.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Yakcheon was superior to proses than poems, and was a bureaucrat writer who had characteristic in petitions.

『Jangsohuigo』 and 『Sochangachik』, which are both collections of the peti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ll contain Yakchon's petition. Among the 13 petitions in 『Sochangachik』 8 of them are Yakcheon's, and among the petitions in 『Jangsohuigo』 6 of them are also Yakcheon's. There are 13 pieces if the overlapped petition is subtracted, and among those, 10 pieces are resignation appeals. These appearances are like that of 162 pieces among 199 pieces of petitions corresponding to resignation appeals, and are also like that of the general petitions in the Joseon Dynasty era.

The features that Yakchon's resignation petition has matches his sentences. Because Yakchon thought that how the person is determines the beauty of that person's words, he thought that personal inner development

should be prior to writing a good composition. Yakchon's value about words was that good compositions and beautiful sentences were not fancy modification or likely depiction but simple and uncomplicated words that describe the situation as it is. This value could also be seen in his resignation petitions. Fixed formats and customary expressions are rejected and direct narration that could be seen as blunt mainly form his writings. His petitions that embodied his meanings and asked for the king's choice in the concise, yet clear sentences show the best writing method to incarnate the intentions that the nature of petitions have.

Key Word : Yakchon Namguman, the petition to the king, resignation petition,
『*Jangsohui*』, 『*Sochagachik*』

윤재환

소속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insemin@dankook.ac.kr

이 논문은 2016년 10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1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